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내부 차별 거부 파업

8월 31일·9월 1일 이틀 파업 ... 지회 “불법파견 해결, 식당 충원 해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아차광주비정규직지회와 서울지부 기아차소하비정규직지회, 기아차화성비정규직지회가 8월 31일 오전 파업에 돌입했다. 지회 조합원인 식당·청소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K5와 K8 등을 만드는 기아차 화성 3공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완전히 멈춰 섰다. 주·야간조 각각 6시간씩 진행한 지회 파업은 9월 1일 까지 이어졌다.

노조 세 곳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 4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29일까지 올 임금·단체교섭을 모두 열여섯 차례 벌였다. 기아차 세 공장 사내하청 업체들과 공동교섭을 진행했다. 지회 주요 요구는 ▲비정규직 사이 임금 차별 해소 ▲식당(현대그린푸드) 인원 충원 ▲해고자 5명 원직 복직 ▲불법파견 문제 해결 등이다.

지회에 따르면 기아차 비정규직 생산직과 비생산직 노동자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현대·기아차 자본은 2016년부터 비정규직을 생산과 비생산으로 나눠 임금 차별을 시작했다. 식당·환경 노동자는 생산공정노동자보다 지난해 성과급을 190만 원 정도 적게 받았다.

기아차 광주·소하·화성비정규직지회는 호소문을 통해 “원·하청 차별도 서러운데, 현대·기아차 자본은 비정규직을 생산과 비생산으로 나눠 임금을 달리 지급한다”라며 “청소 같은 총무성 업무와 급식 제공이 이뤄져야 자동차도 만들 수 있다. 생산에 다 같이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사측은 현재 임금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지회가 업무 구분에 따른 임금 차별이 불합리하다며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했지만, 사내하청 업체들은 격차를 더 벌리는 내용의 제시안을 내놓았다. 식당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에게 청소노동자보다 더 낮은 기본급 인상액과 성과급을 제안했다. 기아차 원·하청업체들이 비생산 업무 안에서도 임금 지급 기준을 달리해 노동자 사이를 갈라치기하고, 임금 차별로 임금인상분을 줄이려고 한다는 게 지회 설명이다.

지회는 “현대·기아차 자본이 비정규직 생산과 비생산 차별도 모자라 비생산 노동자 사이를 추가로 분리해 차별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라며 “임금 격차를 없애 달라는 노조 요구를 짓밟고, 추악하고 더러운 제시안을 던진 사측을 용납할 수 없

어 이틀 동안 파업투쟁을 전개했다”라고 밝혔다.

현대그린푸드 식당 현장의 노동자 수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업체가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식당 노동자들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산업재해도 자주 발생한다. 근골격계 질환을 본인 부담으로 치료하러 다니는 조합원들이 많다.

해고자복직 문제도 풀어야 한다. 노조 설립과 직접고용 쟁취 투쟁 과정에서 지회 조합원 다섯 명이 해고됐다. 짧게는 3년, 길게는 15년 동안 공장 밖에서 투쟁하고 있다.

전현식 기아차화성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노조가 지속해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이기고 있지만, 사측은 남아있는 재판을 핑계로 계속 불법 파견을 저지른다”라며 “올해 교섭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꼭 마무리 짓자는 게 조합원들 뜻이다”라고 전했다.

전현식 사무장은 “불법대체인력 투입 등 사측 파업 방해를 우려해 비상연락을 유지하면서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사측은 지회 요구를 제대로 담은 제시안을 들고와 성실 교섭에 임하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거부합니다. 현대차재벌 인력파견회사”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2,671명 자회사 거부 선언

“저는 2010년 입사해 12년째 기계정비를 하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현대제철은 자회사에 입사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될 수 있다고 협박합니다. 자회사로 가지 않으면 생판 모르는 공정에 들어가서 일해야 한다고 문자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외쳐봅시다. 우리는 현대차재벌 인력파견회사를 거부합니다.”

최창복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8월 31일 오전 현대제철 당진공장 C지구 정문 앞에서 연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자회사 거부 집단선언 기자회견’에서 호소했다.

현대제철은 9월 1일 자회사 ITC의 개업을 강행하고, 사내하청업체 14 곳을 8월 31일로 폐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자회사 ITC에 지원하지 않은 노동자는 다른 사내하청업체로 강제 배치한다고 통보했다.

게다가 최근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원청 사무직이 업무 미숙으로 포장공정 로봇을 부셨고, 자회사 개업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인력 배치에 따른 업무 미숙으로 현장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31일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 자회사는 차별과 불법의 다른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노동자 의사와 관계없는 강제 배치전환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본인의 업무와 다른 공정에 강제 배치하면, 노동강도가 세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접 고용할 때까지 금속노조와 충남지부가 함께 한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이 직접고용하라고 법원이 판결했고, 노동부가 시정

명령을 내렸다”라며 “자회사는 불법을 감추려는 꼼수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오늘 19만 금속노조 이름으로, 위원장으로서 대화의 의지를 갖고 왔다”라면서, “현대제철에 교섭을 요구한다. 현대제철은 어리석게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호규 노조 위원장과 정용재 충남지부장,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 2천여 명의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앞에 섰다.

김호규 위원장은 “자회사를 거부하고 ‘나는 9월 1일부터 현대제철 정규직 노동자다’라고 선언한 2,671명의 조합원이 승리하고,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할 때까지 충남지부를 넘어 19만 금속노조가 함께하겠다”라고 결의했다.

금속노조, 민주노총 신규청년활동가 교육 열어

금속노조가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청년을 위한 노동조합 진로 탐색 과정, 2021년 민주노총 신규 청년활동가 교육’ 3주 차 교육을 시작했다. 20여 명의 청년활동가는 첫날 일정으로 금속노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같이 만들었다.

이번 교육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가 함께 시범사업으로 기획·운영하고 있다. 노동조합 운동이나 사회운동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을 위한 진로 탐색 과정이다. 노동조합의 문턱을 낮춰 노조를 널리 알리고 신규 활동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금속노조는 첫 교육으로 ‘금속노조가 배우는 금속노조의 과거·현재·미래’를 배치했다. 교육은 백일자 노조 문화국장이 담당했다. 청년활동가들은 금속노조 상징, 선언, 강령에 담긴 금속노조 정신을 배우고 금속노조가를 함께 불렀다.

두 번째 시간은 이원재 노조 기획

실장이 ‘산별노조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금속노조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산별노조로서 금속노조 역할과 조직구성,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강의 종료 뒤 금속노조의 여성주의 실천과 성평등, 정의로운 산업 전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져, 청년들의 주된 관심사를 알 수 있었다.

마지막 교육은 최윤정 노조 조직실장이 ‘삶과 세상을 바꾸는 금속노조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금속노조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했다. 최윤정 조직실장은 금속노조 주요 투쟁으로 ▲노동시간 단축 투쟁 ▲한미 FTA 저지 투쟁 ▲노동안전 확보 투쟁 ▲비정규 철폐 투쟁 ▲정리해고 구조조정 분쇄 투쟁을 제시했다.

금속노조는 교육 둘째 날 8월 31일 오전에 금속노조의 미조직·전략 조직사업을 소개하고, 오후 프로그램으로 ‘사람책 도서관’을 운영한다. 사람책 도서관은 책 대신 특정

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책’을 통해 금속노조를 이해하는 신개념 도서관이다.

9월 1일은 청년활동가들은 금속노조 인천지부를 방문해 간담회와 현장순회, 선전전에 참여한다. 이들은 9월 2일 금속노조 지회와 분회에 직접 방문해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고, 권수정 노조 부위원장과 함께 금속노조의 여성주의 실천을 알아보는 시간을 만든다.

교육 마지막 날인 9월 3일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에 관해 알아보고, 이번 교육참가자들이 금속노조에 활동을 제안하는 ‘리버스 멘토링’과 김호규 노조 위원장과 대화 시간을 끝으로 일정을 마친다.

이번 교육은 7월 13일 민주노총이 첫 주 교육을 시작했고, 2주 차 공공운수노조 교육을 거쳐, 3주 차는 금속노조 담당이다. 교육 참가 청년활동가는 면접 등을 거쳐 선발했다.

